

# 완도군, 적조·고수온에 대응위한 어업인 간담회

###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완도군은 지난 24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적조·고수온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 전라남도 국립수산과학원, 완도군 및 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유해성 적조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소규모로 발생하여 수산피해가 없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매년 적조생물이 빨리 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하계 표층수온이 평년 대비 0.5~1.0℃ 정도 높을 것으로 예

상되며, 적조는 종류별로 발생되며 6월중 적조생물이 출현하여 7월 하순 확산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수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전복 가두리 양식을 위한 사육관리 및 어업인 자율방제단 참여를 협조 당부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적조 발생시 단계별 집중 준비기간, 일제 방제 주간 등을 설정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폐사체 신속처리로 2차 피해 최소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조와 함께 여름철 양식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고수온에 관해서도 어업인들에게 적정 사육량 입식 및 입식량 신고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전라남도과 함께 고수온 대응 TF팀을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 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고금면 봉명마을 어촌계장 박정순씨는 "적조 및 고수온을 대비한 사육관리 매뉴얼에 따라 어장관리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올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통계 자료를 보면 적조로 인해 최근 5년간 피해액은 560억 원에 달하며, 2016년도에는 347억 원으로 전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는 완도지역 고수온 및 폭우로 인해 전복 양식어장에 피해가 발생만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음면어 입식 신고를 철저히 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강조하며 "적조 발생 시 자율방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군, 마을공동급식 농번기 일손 해결 '톡톡'

### 가사부담도 덜고 농촌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



장흥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를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지난해 보다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 공동급식은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 급식시설이 구비돼 있고 참여인원이 하루 20인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해 25일간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바쁜 농사일에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던 여성 농업인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장흥읍 행원마을 한 주민은 "농번기철에 주민 30여명이 오전 농사일을 마치고 마을회관에서 제공하는 위생적이고 양질의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영농정보도 교환하면서 주민 화합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 공동급식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줄이는 것을 물론, 농촌 공동체 형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 여수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11월까지 근린공원 등 116곳 놀이시설 상태 확인



여수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근린공원 22곳과 어린이공원 68곳, 소공원 26곳 등 116곳에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그네, 미끄럼틀 흔들 놀이기구,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기구다.

시는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화 정도, 변형·정렬 상태, 안전수칙 표시 여부, 위험물질 존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41곳의 정기검사도 완료했다.

앞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놀이기구별 안전정보 정기검사 유무 등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 무안군,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 기대

### 홀통항·마동항·툭머리항·도리포항서 방류행사



무안군은 25일 환경면 홀통항을 비롯해 삼항읍 마동항, 망운면 톱머리항, 해제면 도리포항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지선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류종자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류행사는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관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성돔 33만5천마, 점농어 17만8천마 등 부가가치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천혜의

어패류 서식지 및 산란장으로서 지난 1996년부터 종지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자원회복 효과 큰 해역에 방류했다.

무안군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와 협력하여 지난 4월말과 5월초에 망운면 톱머리항과 장제 해역 주꾸미 해상가두리에 어미 주꾸미 265kg을 방류했고, 5월 23일에는 해제면 민중 해역에 3,000천마의 대하종자를 방류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낙지바다목장 조성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조성과 더불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수산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진도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역량강화교육

### 1388청소년지원단 25명 대상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388청소년지원단 25명을 대상으로 '어른들은 모르는 청소년 도박의 세계'를 주제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안내와 1388 청소년

지원단의 운영과 역할, 위기 청소년 발굴·지역연계를 위한 홍보 등이 실시됐다.

특히 게임과 도박의 차이 인식을 비롯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게임안의 사행성,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과 대처방법 등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원봉사 조직인 1388 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며 "앞으로 위기 청소년 발굴, 홍보지원단, 멘토지원단의 역할 등 1388 청소년지원단이 활성화되어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